

SUMMARY ESSAY – THE HISTORY SECTION
 WHAT THEN SHALL WE BE?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THE CHURCH OF THE NAZARENE
 By Floyd T. Cunningham, Ph.D.
 Asia-Pacific Nazarene Theological Seminary

요약 논문 - 역사 분과

우리는 무엇이 될 것인가?
 나사렛교회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플로이드 커닝햄 (아시아태평양 나사렛신학대학원)

번역: 정무성 (한국 나사렛대학교)

21 세기 초엽을 거치면서 우리는 나사렛교회의 과거, 현재, 미래를 벅찬 가슴으로 회고, 성찰, 예측한다. 바로 역사 분과의 5 개 논문들—해롤드 레이저(Harold Raser), 페데리코 멜렌데즈(Federico Melendez), 폴 마틴(Paul Martin), 디크 유지니오(Dick Eugenio), 그리고 러스틴 브라이언(Rustin Brian)이 발표한—은 우리가 어떻게 현재의 모습을 구축했고, 현재 어디에 위치하고 있으며, 앞으로 무엇이 될 것인가에 대해 진솔하게 진술한다. 이들 논문들은 우리에게 위로와 위안을 제공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사렛교회를 향해 갖고 계신 위대한 목적들을 향해 전진하도록 우리를 도전한다.

이들 논문들의 여러 주제들은 이전 모임에서 발표된 것들과 매우 흡사하다. 특히, 공황에 관한 통전적 메시지, 소외된 자들에 대한 우선적 배려, 그리고 환경에 대한 관심 같은 사안들이 그러하다,

성결의 여정: 과거

각각의 논문은 일정부분 나사렛교단의 역사를 소개한다. 해롤드 레이저의 논문은 나사렛교회가 태동한 미국 상황에 집중한다.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관한 웨슬리의 가르침은 미국 감리교도들에 의해 상황화되었다. 나사렛신학대학원(NTS) 교수인 레이저는 “19 세기 미국의 ‘성결’과 웨슬리안 운동보다는 광의적 기독교 역사 전통 속에 나사렛 정체성을 뿌리내리는 노력이 더 적절하다”라고 진술한다. 그럼에도 그의 초점은 분명 미국에 있다. 왜냐하면 과거와 현재에 걸쳐 우주적 교회와 연결되어 있지만, 우리는 특정한 상황에서 특별한 목적으로 발생한 독특한 교회이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의 부흥주의적 유산은 미국적 가치의 강화에 기여했다. 완전 성결의 직접적 경험을 강조한 이런 미국적 가치와 모델은 초기 나사렛 선교사들을 통해 세계로 이식되었다.

지적 역사의 관점에서 성결 운동을 고찰한 레이저와는 대조적으로, 멜렌데즈는 그것이 태동한 사회적, 경제적 맥락에 주목한다. 멜렌데즈가 인용한 티모시 스미스(Timothy Smith)는 성결 운동을 부의 급격한 증가가 정부 정책들을 결정했던 시기에 사회적 사안들에 대한 개신교의 관심과 연결시켰다. 나사렛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복음주의권의 관심이 “대반전”된지 10 년 뒤 출범했다. 멜렌데즈가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당시 나사렛교회는 소속 학생들을 위한 대학 설립과 수십명의 해외선교사 파송을 결정했다. 대공황 동안 나사렛인들은 ‘교육과 선교,’ 이 두가지 대의를 위해 그들 자신의 도시 지역과 도시 빈민에 대한 전도를 희생하면서까지 헌신했다. 멜렌데즈는 북미에서 흑인들에 대한 무관심과 남미에서 빈자에 대한 홀대사이의 유사점을 지적한다 (p.7).

아프리카와 기타 지역에서 나사렛교회의 성장은 정치적 상황과 밀접해 있다. 러스틴 브라이언, 폴 마틴, 딕 유지니오 모두 나사렛교회가 활동했던 식민지, 탈식민지 정황을 언급한다. 브라이언이 지적하듯, 나사렛교회는 로마 카톨릭처럼 식민주의 프로젝트를 의식하지 못한 것 같다. 서 아프리카 선교사인 마틴은 19 세기와 20 세기 초 아프리카 교회의 성장과 그 교회의 아프리카계 북미 근원 사이에 유사성이 없음을 지적하며, 단지 그 교회의 “예외성”을 강조한다.

아시아태평양 나사렛신학대학원 교수 딕 유지니오는 나사렛교회의 국제화에 있어 그 뿌리와 여정을 탐색한다. 교회의 국제화를 고상한 이상으로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계화와 같은) 그런 동향을 “평평한 세계의 창조가 아닌 기득권의 과(過)신장”이라는 비(非)북미권 시각에 수용적이다 (p.3). 역사가 증언하듯, 통제로부터 자유를 추구하던 자들은 “기존 권위를 그들 자신들로 대체”하곤 했다 (p.4). 유지니오에 따르면 다원주의를 주창하며 일원주의를 반대한 사람들의 많은 경우 자기본위적 동기가 그들 행동 기저에 자리잡고 있다. 식민주의가 종종 극히 억압적인 지역 정권으로 대체되는 경우가 있었다. 동일한 현상이 교회에도 일어날 수 있다.

브라이언은 나사렛선교사들이 초창기부터 토착적 리더십의 증진을 의도했지만 식민주의 행정부처럼 그 실행에 있어서 너무 더디었음을 지적한다. 유지니오와 마찬가지로 브라이언도 다양한 문헌을 통해 교회의 “국제화”에 관한 역사를 검토한다. 이런 연구를 바탕으로 그는 교회의 합의가 (국가 교회의 연합체가 아닌) 지구적 교회의 창출, 핵심가치의 확인, “비대칭적 구조”의 허용으로 귀결되었음을 보고한다.

성결의 여정: 현재

레이저는 교회의 미국적 태생이 교회의 미국적 문화화로 귀착되었음을 언급한다 (p.5). 우리는 “권위의 민주적 또는 참여적 형태”를 선호하고 “엘리트주의”보다 “보통 사람들”의 양식을 중시한다. 우리는 과거보다는 현재와 미래를 주목한다. 우리는 “단호한” 행동을 애호하나 “과정, 성찰, 사변”에 서투르다. 우리는 실용적이며 실제적이다. 우리는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능한 한 최대 포착하여

“혁신”을 추진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이러한 특성이 문화적 가치인가? 아니면 하나님나라 가치인가?

멜렌테즈는 이런 특성이 하나님나라 가치가 아님을 명시한다. 그에 따르면 북미의 19 세기 상황과 오늘날의 근대화 과정 사이에는 유사점이 존재한다. 그는 성결 운동이 전자의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 산업화의 경제적 영향을 단호히 다루어야 함을 경고한다. 교회는 물질주의적 철학을 비판하며 기독교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멜렌테즈는 교회를 “사랑의 신학적 관점에서 통전적 선교와 사회 윤리”로의 정향(定向)을 시도한다 (p.1). 그는 남미에서 지속되고 있는 빈부격차를 묘사하면서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선교를 포기”하지 말아야 함을, 그리고 교회가 “작금의 경제 시스템에 타협”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 (p.8). 그는 교회가 하나님의 이미지,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환경의 생명성을 격하시키지 말아야 할 것을 역설한다. 이를 위해 사랑이 중심된 신학—온정적 복음과 “통전적 구원”을 강조한—이 요청된다. 그에 따르면 공홀(온정)은 “모든 교단의 심장에 공급되어야 한다.” 이럴 때 교회는 자신의 “초라한 연원”를 기억하며 “과시적 건물들”을 지향하지 않는다 (pp.8-9).

멜렌테즈와는 달리, 나는 교회가 19 세기의 북미 근원과 연계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을 향한 연민을 제발견했다. 개선할 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공홀사역은 충분히 사랑할 만하다. 외부에서 나사렛교회는 실로 공홀지향적 교회로 널리 알려졌다.

마틴에 따르면 아프리카 등지에서 한때 원시종교에 관여했던 자들 사이에 회심의 역사가 일어난다. 태생적 환경이 미국적 교회를 형성했다는 레이저의 설명은 아프리카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마틴의 지적처럼, 기독교 신학은 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의 문화적 가치와 연계되어야 한다. 따라서 아프리카 신학자들은 그들 자신의 정황에서 복음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며 성경, 전통, 이성, 경험의 웨슬리안 사변형을 상황화시킨다. 레이저가 묘사한 미국적 가치와는 달리, 아프리카인들은 평화, 조화, 총체를 중시한다.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아담과 같은 조상들에 의해 설정된 관계의 선례와 지속적 상태를 인정하면서 그리스도를 통해 깨어진 관계의 회복을 통해 오는 “은혜 위에 은혜”를 붙잡는다. 아프리카인들에게 그리스도는 위대한 정복자이다.

유지니오 역시 교회의 관계적 성격을 강조한다. 나사렛교회가 대표하는 다양성을 찬양하는 동시에 그는 “국제화”가 교회의 미국적 통제를 더욱 용이하게 만드는 가장된 구호가 아닌지 경계한다. 이 때 레이저가 묘사한 미국적 가치와 유지니오의 성찰이 중첩되는데, 교단의 질서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는 관계성을 파괴할 수 있다. 유지니오는 교회의 정책을 더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한 방책으로 효율성이 추진되지 말아야 함을 경고한다.

유지니오의 성만찬 비유와 유사한 시각에서 브라이언은 교회의 책무를 “특정 제국의 확장이 아닌 새로운 백성”을 창조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p.3). 그는 우리가 “급진적으로 평등한 방법으로 권력을 공유”하지 않으면 “이전에 ‘해외 선교지역’으로 분류되었던 세계 여러 곳곳에서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죄를 범할” 가능성이 농후함을 지적한다. 브라이언에 따르면 복미 중심적 교회가 여전히 우리의 실상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런 과도적 상태는 속히 하나님나라 윤리로 대체되어야 한다.

성결의 여정: 미래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전개될까? 논문들이 제시하는 미래적 가능태는 다음과 같다.

마틴은 아프리카 신학이 아프리카의 토착적 상황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더욱 정교하게 발전할 것임을 예측한다. 자신들의 삶과 무관한 질문과 해답을 해대는 서구 신학에 아프리카인들은 더 이상 친착하지 않을 것이다. 마틴에 따르면 서구 신학자들은 아프리카 상황에 충분히 익숙하지 않기에 아프리카인들이 실제로 묻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해답을 제시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가시적 세계와 비가시적 세계와의 관계, 인간과 조상, 정령 등과의 관계, 신적 능력 조종의 타당성, 표식, 경이, 기적, 예언의 분별, 복음과 환경과의 관계 등. 마틴은 아프리카 웨슬리주의가 “창조의 총체성”을 강조한다고 간주한다. 멜렌테즈처럼 그는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온정적으로 대하는 신학을 열망한다.

그러나 권력을 소유하면 가난한 자들 역시 권력의 유혹에 쉽게 넘어진다. 작금의 세계화는 사람들 사이의 긴장을 전혀 완화시키지 않았다. 유지니오의가 지적하듯, 세계화는 “인정과 지배를 위한 경쟁”을 더욱 고조시킨다 (p.5). 최악의 경우에도 나사렛교회의 일치는 강력하고 유력한 쪽이 더욱 강력하고 유력하게 되어 더욱 엄중한 통제가 가해지는 방향으로 흘러가서는 안된다 (이것은 사람들을 교회로부터 이탈시킬 것이다). 정치 국가체제와는 달리 교회들은 자발적인 모임들이다. 유지니오는 교회 분열이 남반구-북반구 간의 이원화로 귀결될 것이라는 필립 켄킨스(Philip Jenkins)의 예측을 인용한다. 그러면 이런 분열의 예방책은 무엇인가? 비-서구화는 영적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할 것이다. 유지니오에 따르면 다원주의적 접근은 단지 “인정, 권력, 그리고 권위에 대해 경쟁적인 열성분자들의 과잉”을 창출할 뿐한다 (p.5).

유지니오는 그리스도의 임재에 관한 성만찬 교회론을 통해 교회에 내재한 긴장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다. 그것은 성찬 테이블에 나란히 무릅꿨고 앉아있는 교회의 이미지이다. 그 어는 누구의 존엄성에 차별이 없다. 성찬 테이블에서는 권력 투쟁이 없다. 오직 모임, “보편적인 연대,” 그리고 *코이노이아*만이 존재한다. 진정한 *코이노이아*를 위해서 성찬에 참여한 모든 구성원들은 떡과 포도주를 나누기 전에 서로 간 화해해야 한다. 떡과 포도주를 받는 것은 자기 성찰, 고백, 그리고 회개—자신이 아닌 타인을 높이는—를 요청한다. “기독인들은 실제적 삶없이 성찬에 참석하는 것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한다.” 이런 성찬 테이블의 모습은

‘교회란 무엇인가?’ 또한 ‘성결은 무엇인가?’에 대한 가장 고상하며 직접적인 묘사일 수 있고, 이를 통해 하나님나라 윤리가 도출될 수 있다. 인위적인 방식이 아닌 이러한 우리 유산과 신학의 자연적 진행 과정 속에서 국제 지도자들이 등장할 것이다.

교회에 내재한 긴장에 대한 해결책에 있어 브라이언은 좀더 구체적이다. 어떤 의미에서 브라이언이 대담한 국제화 과정의 미래 청사진은 미국적이면서 나사렛적인 가치에 대한 헌신이다: 경제적, 사회적 지위가 아닌 회원권에 기초한 참여 민주주의. 그는 조직 구조의 수정을 추구, 촉구한다. 그에 따르면 지금이야말로 “우리 조직체의 구조적 변화를 실행함으로써 토착적 리더십 확립이라는 우리의 본래적 목표를 온전히 실현할 시기다” (p. 3). 유지니오와 유사한 논리로 브라이언은 북미교회가 권력을 기꺼이 포기할 것을 요청한다 (그런데 “‘국제 공동체’에 속한 이들을 권력의 자리로 초청하라”는 그의 표현은 부자연스럽다. 노블리스 오블리제와 같은 성격을 보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해방신학자들이 주장하는 빈자에 대한 우선적 선택의 뉘앙스를 풍기기 때문이다). 브라이언이 인용한 1985년에 R. F. 재너(Zanner)가 제기했던 질문은 여전히 유효하다: “우리는 국제교회로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해외에 지점을 둔 미국교회로 남아있을 것인가?” (p. 6). 브라이언은 우리가 선한 웨슬리언이 되어 나사렛교회의 비전과 총회위원회의 계획이 실행되는 것을 전향적으로 내다보아야 함을 주장한다.

브라이언은 특히 두 개의 대안적 제안을 한다. (1) 중앙감독 수의 확대: 각 지역에서 지역 출신 또는 장기 거주자 중에서 두 명씩 선출하되 그 중 한 명은 여성으로 할 것. 이것의 구체적 실현 방안은 언급되지 않았다. (2) 중앙감독 수의 축소: 중앙감독을 세 명만 선출하되 각 지역에서 한 명 이상은 금지하며 그 대신 지역 출신의 지역 담당자 수를 확대할 것. 나의 의견은, 만약 분배와 분할이라는 조직 윤리에 의거해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는 목적론적 윤리를 희생한다면 우리는 전진이 아닌 후진을 선택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성찰

강력한 감독제도는 우리에게 전해진 웨슬리안 유산이다. 감독제도는 뚜렷한 장점이 있다. 존 웨슬리와 프란시스 에즈베리 양자 모두가 지역 설교자들과 순회 설교자들을 자애롭게 임명할 수 있었던 체계는 복음의 급속한 확장을 촉진했다. 선교운동 역시 이와 유사했다. 감리교도들은 이런 임명제도를 이용해 여성과 소수민족을 주요 목회자와 리더십 자리에 앉혔다. 다양한 합병이 벌어졌을 때 지역 교회들은 철저한 회중주의와 자율성을 포기했다. 그러나 그들 자신의 목회자를 선출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는 유지했다. 그러나 다른 리더십 자리의 경우 대체는 임명으로 기울었다.

국제적 교회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증언하는 성결적 교회가 될 수 없다. 그리스도의 영은 “동서남북의 구별 없이 사랑으로 하나된 위대한 교제”인 살아있는 몸을 창조한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의도했던 바로 나아가는 도정에 있다. 희망을 잃지 말자.

소모임 토의를 위한 질문들

1. 하나님나라로의 목적론적 여정에 있어, 문화적 편향이 없는 하나님나라 윤리의 구축이 가능한가?
2. 교회의 구조와 사고방식이 식민주의적 유산을 아직도 반영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이러한 관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3. 강력한 (연회, 지역, 중앙) 감독제도의 장점과 약점은 무엇인가? 지역전략국장(FSC) 또는 지구장(RD)의 직접 선출을 주저하는 이유가 있는가? 또한 이들의 직접 선출을 실행할 방법은 있는가?
4. 멜렌데즈의 바램은 신학 논문들이 “서류함 속의 문서”가 아니라 (다른 모든 교회들처럼) 하나의 교회로 남아있는 것이다. 성찰과 행동 간의 간극을 매우는 것은 무척 어렵다. 이들 논문들에 비추어 나사렛교회 구조를 위한 미래적 가능태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